

7. 아담의 본능, 리비도

리비도, 성욕 자극이라는 의미로 남자들의 영원한 본능적 과제를 뜻한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수명은 약 76세. 노인이 되면 성욕이 없어질 거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남자들은 칠순의 나이를 넘기고도, 여전히 성을 원한다.

성은 남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외로 남자의 성은 남성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http://www.kbs.co.kr/1tv/sisa/health/view/vod/1484430_941.html

1) 성, 남자들의 영원한 과제

남자는 성에 막 눈을 뜨기 시작한 사춘기 남자아이에서부터, 칠순을 넘긴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섹스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생활의 활력을 찾는다.

만일 발기장애가 있다면 심혈관계 장애 가능성이 있다.

남자들은 왜 性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2) 왜, 남자인가?

남자는 XY 염색체와 고환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1쌍의 정소의 Leydig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호르몬이 하루 1ml 분비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세정관에서 정자가 생성되도록 한다.

과연 남자란 무엇일까?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일까?

3) 남자의 마음을 분석하다...

남자는 왜 예쁜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쪽이 성적으로 빨리 흥분할까?

남자는 성적 자극을 시각, 청각, 후각적으로 다양하게 받아 성 호르몬이 분비되게 된다. 그래서 여자보다 성적 자극이 더 빠르게 일어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성 역시, 성에 대한 욕구는 변함이 없을까?

스트레스로 인하여 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고, 소량의 음주는 혈류를 상승시켜 발기능력을 높이지만, 과음은 알코올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정소의 라이디히(Leydig) 세포를 사멸시켜 발기능력을 떨어뜨린다.

4) 남자의 성을 알면 건강해진다!

남자들의 性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영국 브리스틀대 임상외과학과 조지 데이비 스미스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기적인 성생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두 배 가까이 낮았다고 한다.